

이명박號 목표는 '선진 일류국가'

국정과제 뭘 담았나

이명박 정부의 좌표와 향로가 밑그림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대 국정전략목표를 선정,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함으로써 국정 청사진을 확정지은 것이다.

인수위는 대선 기간 쏟아져나온 공약들을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의 잣대를 통해 여파한 뒤 5개 국정목표를 선정했으며 우선순위에 중에도, 시급성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다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공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방법, 재정요소, 정부적 관점 등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보고내용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人材)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토대가 된다는 분석이다. 관치와 규제에 치우쳐 온 정부의 몸집과 기능은 줄이되,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고 시장의 자율적 활동을 극대화한다는 게 핵심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

1 활기찬 시장경제 -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신성장 동력 확보 - 서비스산업 선진화 - 일자리 창출	2 인재대국 -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 평생학습의 생활화	3 글로벌 코리아 -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 실용적 통상외교·농동작 개발 -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 아름다운 삶의 질의 문화	4 능동적 복지 - 평생복지 기반 마련 -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 시정기능을 활용한 시민생활 안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5 섬기는 정부 -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 청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	--	--	---	---

192개 국정과제(장정) — 43개 핵심과제-63개 중점과제-86개 일반과제

경제 살리기 '핵심'...5대 지표·21대 전략목표 교육개혁 예정대로...국민 '섬기는 정부' 구현

5대 국정지표의 첫머리를 '활기찬 시장경제'가 장식한 것도 '경제 살리기'를 향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가장 먼저 기업 투자자의 욕을 살리기 위해 감세와 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또 'MB노믹스'의 정수를 이루는 7% 성장률 달성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그대로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대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뚜렷한 좌표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인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

교육개혁 정책도 예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 서민가계를 쪼들리게 하는 사교육 문제를 풀지 못하고는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상향인식 속에서 사교육의 진원지 격인 영어 교육의 개혁을 당초 방향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정부가 시장기능을 활용해 시민생활 안정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는 '능동적 복지' 개념을 도입했으며 정부와 공공

분야는 방만한 조직과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을 윈스톱으로 지원하는 '섬기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전략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110개 중앙행정기관 업무보고 ▲공약 이행방안과 주요현안 집중검토 ▲267회에 걸친 각종 협의와 54회에 걸친 현지 의견수렴 절차 ▲정책제안 검토 작업을 거쳐 추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국정과제는 단순히 기존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물을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상당 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또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이 당선인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다시금 조정 작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공천 신청 마감일인 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접수처가 신청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20여년만의 공천 경쟁?

광주 동구 김태욱씨 등 공천 희망자 몰려

올 4월 총선을 위한 한나라당의 공천 경쟁이 광주·전남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날 공천 신청 마감 결과, 20개 지역구인 광주·전남지역에 30명 이상의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출마 희망자를 찾지 못해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던 이전 선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특히 광주 동구 선거구의 경우 4명, 나주·화순 선거구의 경우 6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광주 동구에는 김태욱 전 광주케이블TV 사장, 김정업·임강석·정필중씨, 서갑에 정용화 전 연세대 연구교수, 오비오씨, 서울에 이정현 당 부대변인, 남구에 김영한씨, 북갑에 이가연씨와 한상택 한국응용변연설인중앙회장, 북을에 김천국씨, 광산에 안재홍 광주시당위원장과 조재현 대신광산구선대본부장 등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에 임송본 전 목포시의회 의장과 우송하·천성복씨, 여수갑에 김용우·주봉심씨, 여수을에 심정우씨, 순천에 황선호 국가정보통신 회장 등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나주·화순에는

원희룡 의원의 측근인 김창호 당 부대변인, 원종열 교육정보통신위원장, 조기영 전 화순군의원, 김경남·문종안·임근욱씨 등이 공천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안·구례에 정철기 전 국회의원과 안두영씨, 고희·보성에 장귀석씨, 장흥·영암에 채경근씨, 강진·완도에 김정원 뉴라이트 광주·전남연합 공동대표, 해남·진도에 설철호씨, 무안·신안에 안희석씨, 담양·장성·곡성에 유택열씨 등이 각각 공천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이처럼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 것은 20여년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당-민주 설 前 통합 무산

설 이후 협상 재개키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협상이 5일에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설연휴 이전 양당 통합은 일단 무산됐다.

하지만 양당은 이날 협상 결렬을 공식선언하지는 않았다. 대신 설 이후라도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통합의 불씨는 살려뒀다.

쟁점사항은 공동대표 선관위 등록 문제 뿐이지만 양당은 이날 물밑 접촉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신당은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 체제로 하되 선관위에 손대표만 등록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양당 대표의 동등한 법적 등록을 요구했다.

신당은 수도권 총선표심을 겨냥, 통합정당이 '호남당'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선 '손대표 단독등록'이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박 대표가 공동대표로 등록한 뒤 호남공천 문제로 갈등이 빚어질 경우 '옥새'를 권 박 대표가 공천장에 '도장찍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동대표 법적 등록은 상식선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지분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대표는 소수당인 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배려라는 주장이다. 또 공천권 행사에서 박 대표가 결립될 수 있다는 신당측 견해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신당 손 대표측은 "신당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압박했고, 민주당 박 대표측은 "공동대표는 당의 명예가 걸린 일로 신당안을 수용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엑스포 등 국제이벤트 준비 최선”

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



“새 정부가 국정과제의 첫 그림을 그릴 때 전남도가 신속히 대응해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취임한 박재영(54)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총력 투자유치와 해양경영으로 녹색의 땅 전남을 새롭게 도약시키려면, 광역경제권 개발 등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빠르게 파악해 선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2세계 여수박람회와 2010 F1자동차 대회” 등 초대형 국제 이벤트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전남의 풍요한 미래

를 여는데 행정부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출신으로 광주일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햄대에서 석사, 한양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5회로 함평군수, 전남도지사 비서실장,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한 성품에 조직관리가 원만하고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news@kwangju.co.kr

“낙후된 지역발전 위해 다시 뛰겠다”

32년 공직 생활 마감한 김영룡 국방부 차관



김영룡(57) 국방부 차관이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32년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김 차관은 화순 출신으로 광주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5회 행정고시 수석합격과 함께 재경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11월 재경부 세계실장에서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 2006년 11월 문민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방부 차관에 올랐다.

- 소감이 남다를텐데, ▲공직생활 내내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특히

이 생각한다. - 문민 차관으로 국방개혁이 쉽지 않았을텐데,

▲어려웠던 점은 혁신마인드를 가진 우수한 인재 부족과 재정적인 한계 및 주어진 시간의 촉박함, 각 군의 이해관계 상충, 부대 재배치 과정에서 불거지는 민·군 갈등이었다. - 사직 이후 계획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은 전문 지식과 인맥을 이용,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 특히 고향인 화순을 교육·양로·환경·문화가 어우러진 품격있는 고장으로 변모시켜 누구나 화순에서 살기 원하도록 만들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8년 (제6기) 한자 한문 지도사 자격모집

▶ 접수일정
- 접수처: (주)한자한문지도사협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11-1, 111호)
- 접수기간: 2008. 2. 11(수) ~ 2008. 2. 21(금)
- 접수시간: 2008. 2. 11 ~ 2008. 2. 21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접수처: (주)한자한문지도사협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11-1, 111호)
- 접수처: (주)한자한문지도사협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11-1, 111호)

▶ 시험일정
- 시험일: 2008. 2. 22(토) 9:00 ~ 12:00
- 시험장: (주)한자한문지도사협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11-1, 111호)

▶ 응시자격
- 학력: 고졸 이상
- 연령: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 기타: 본 협회 회원이어야 함

▶ 응시비
- 응시비: 20,000원 (시험료 포함)

▶ 합격기준
- 합격률: 20%

▶ 응시방법
- 접수: (주)한자한문지도사협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11-1, 111호)
- 접수처: (주)한자한문지도사협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11-1, 111호)

▶ 문의처
- 전화: 041-229-2222
- 팩스: 041-229-2222
- 홈페이지: www.hanjabooks.com

40주년 기념 2월11일 시작반 특별이벤트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을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합격신화!!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

건물 매각

2008년 2월 6일

1. 011-222-8763

바이오싱크케어

합수기나 전도기 등 제조기업

1. 011-222-8763